

광양시, 친일 논란 시민의 노래·공적비 정비

시민의 날 제창 중단하고
유당공원 비석 2개 구분 등
시민 의견 수렴 후 추진키로



광양시는 유당공원 내 친일파 공적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 유당공원 내 비석군.

광양시는 친일논란이 제기된 '시민의 노래' 제창을 중지하고, '유당공원 내 친일파 공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민의 노래'는 1989년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제작돼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하면서 '동광양'이 큰광양으로 개사돼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서정주와 김동진이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어 그동안 광양시민의 노래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정주는 친일전쟁 작품 11편을 남겼고, 김동진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건국 10주년을 호응하는 경축곡 등을 작곡했다. 또 서정주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

고서 1006인 명단에 수록돼 있으며, 작곡가 김동진 또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2009년 발행)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유당공원 내 비석도 2008년 향토문화유산 제7호로 총 13기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을사조약 이근택의 동

생 이근호와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낸 조예석 비가 친일논란을 불러왔다.

이근호(전라남도 관찰사, 1902년, 남작 작위)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1006인 명단에 수록돼 있으며, 조예석(전라남도 관찰부 광양군수 1902~1904, 판사) 또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

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이 두 사람의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친일행적 기록을 안내문에 넣고, 비석은 존치하도록 광양시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존치돼 왔다.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와 광양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노래'와 '친일파 공적비'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우선 '시민의 노래'는 시 공식행사에서만 사용을 중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노래 제창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친일논란 비석 2기 또한 이들의 친일행적이 명백하므로 역사자료로 활용하되 비석은 유적비와 별도로 구분해 설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광양시장애 탁구대회 모습.

광양시 '생활스포츠 자치단체 평가' 대상

광양시는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대상은 생활스포츠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이끌며, 각종 스포츠 대회로 대한민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광양시는 지난 8월 29일 데일리스포츠한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우수성과 전문성, 현장효용, 홍보역량, 주민여론, 지속성, 평판도 등 정량,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스포츠 전문가와 언론기자 등의 종합심사를 거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양시는 매년 120개의 생활체육대회와 10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약 300억 원의 지역 실물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윈드서핑과 아이스

하키, 어린이체육 교실 등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식 전천후계이트볼장과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은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건강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건립될 생활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중마수영장, 체육공원 등은 16만 시민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생활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스포츠 미래를 밝히는 생활체육의 선진도시로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생활스포츠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생활형 복합 SOC' 선정 광영·금호동 도시재생 탄력

국비 등 사업비 85억 확보

광양시는 최근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형 복합 SOC지원사업'으로 광영동과 금호동 지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85억 8000만원, 국비 45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다.

'생활SOC'란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의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생활SOC 10종 사업에 대하여 2

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할 때 사업을 선정한다.

광양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생활형 복합 SOC를 공급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생활성화지역 내 광영동과 금호동에 각각 사업을 신청했다.

특히 공모에 대비하여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도시재생 생활SOC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자문 등을 진행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8일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중앙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생활형 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광영동 생활SOC 복합 시설'은 2018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옛 광영빌딩과 그 주변 지역의 시설 복합화 사업이다.

4개 층에 대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1개 층에 대한 다목적 돌봄센터 구축 사업, 일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기업 카페 등이 함께 구축될 계획이다.

'금호동 생활SOC 복합시설'은 공모를 준비 중에 있는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공공도서관의 신축과 공동육아나눔

터, 지상 주차장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를 준비 중으로 지난 9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에 광양시는 총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광영동, 금호동 지역 도서관 복합시설 외에도 중마동 지역 가족지원센터 복합시설이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책 문화축제' 시민 2000여명 즐겼다

시 승격 30주년·독서의 달 맞아
독서문화 체험부스 운영
플리마켓·다양한 공연



'2019 광양시 책 문화축제'가 광양 희망도서관 일원에서 열렸다.

'2019 광양시 책 문화 축제'가 최근 가족 단위의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광양시 책 문화 축제'는 시 승격 30주년과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며 '다시, 책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진흥 유공자 시상, 작가 특강, 전시, 책 표지 바퀴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플리마켓이 펼쳐졌다.

또 독서유공자 수상자로 김수정 세바텍 독서동아리 회장과 마커스 스토어 영여강사 등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평소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온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독서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의 '인절미 집집가는 날', 회장잔담, PS열쇠고리, 나만의 감성 독서기록장, 책으로 상상놀이, 책 속 한줄 캘리그래피, 세계문화체험, 마술동화 '슈퍼

거북' 등 20여 종의 독서문화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 매직 별문쇼,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공연들이 함께 진행됐다.

이 밖에도 광양시민이 사랑한 책 베스트 50, 창작시 수상작 시화전, 캘리그래피 수강생 작품, 프리랜서독아리 도서 삽화 전시와 행운권 추첨, 포토존 등 부대 행사들

이 도서관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승격 30주년과 독서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송가인 온다... 12일 '포스코 콘서트'

광양제철, 미스트롯 5인방 초청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는 12일 광양시 중앙일반부두에서 대한민국 트롯 열풍을 이끈 미스트롯 출연 5인방을 초청해 '포스코 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포스코 콘서트'는 광양제철소가 광양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 시민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된 공연이다.

공연에는 트롯가수 송가인을 비롯해 정

미애, 홍자, 정다경, 김희진이 출연하며 나온사 출신의 김현욱이 진행을 맡는다.

공연 입장을 위한 티켓은 지난 4일 광양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됐으며 티켓 소지자에 한해 오후 4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지역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광양지역 대표 공연인 대학국악제의 본선 행사를 11일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 안전



사고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양시, 광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MUDEUNG PARK HOTEL & RESORT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리뉴얼된 객실과 도심 속 휴양시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저, 온천 사우나가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1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도심 속 양질의 온천수 사우나
- 각종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